

# 수필의 장르분화, '테마에세이' 붐

## 자전적 기록에서 성에세이까지...전문성과 문학성 결합엔 아쉬움

고독, 방황, 출발, 여행, 사색, 그리움, 사랑, 우수 따위의 지극히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제를 현란한 감수성과美文으로 포장한, 한 평론가의 혹평대로라면 "어떤 시인이 되다 만 시를 줄글로 내어놓듯 한" 수필집들이 서점가를 휩쓸며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잠 못 이루는 밤'식의 추상적 이미지로 독자를 사로잡는 수필집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테마에세이 집들이 연이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예컨대 金華榮의 「프랑스문학산책」(세계사)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처럼 일관된 주제나 특정 소재를 중점적으로 다룬 글들을 한데 모은 에세이집 출간이 점차 늘면서 수필집의 장르분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민음사(「오늘의 산문총서」), 한길사(「한길산문정신」)를 비롯해 한마당, 정우사, 나남, 전예원 등에서 테마에세이집을 시리즈물로 펴낸데 이어, 최근엔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집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단발물로 출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 잡지연재의 부산물로 엮어진 책 많아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자전적 에세이로 지칭될 만한 책들. 김준엽의 「長征」(나남), 이영희의 「歷程」(창작과비평사), 박이문의 「事物의 言語」(민음사)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들이고, 고은의 「황토와 순결」(한길사), 서정주의 「나의 문학적 자서전」(민음사) 등이 오래전에 나와 여전히 팔리고 있는 책들이다. 이철호의 「마침내 통일일은 온다」(서문당)도 '본격'은 아니나 자전적 에세이의 면모를 짙게 드러내는데, 이들 책은 대개 한 개인의 내밀한 성장사를 '육성'으로 드러내보인다는 점에서 색다른 독서의 맛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인물탐방기'적인 성격의 에세이들을 한데 모은 책들도 꽤 많이 나와있는 편이다. 김현의 「시인을 찾아서」(민음사), 김주연의 「나의 같은 나의 작품」(민음사), 김승희의 「영혼은 외로운 소금밭」(문학사상사) 등이 본격적인 작가론에 육박하는 이른바 '肖像文學'의 경지를 보이고 있고, 김명곤의 「광대열전」(예문), 최무자의 「朝鮮匠人들」(해진서관), 양성우의 「삶」(실천문학사) 등은 전통기에 인이나 향토에 묻혀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잡지연재의 부산물로 출간을 보게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제를

### 추상적 이미지로 제시하는 수필집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 특정분야의 글만을 따로 모은

테마에세이 출간이 활발해지고 있다.

### 최근에는 이같은 흐름이

더욱 다양화·세분화되면서 장차

수필의 장르분화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행에 관한 에세이집에 이르면 그 테마나 소재가 보다 세분화,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단순히 여행 자체를 다룬 책들은 논외로 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방면의 책들로 가장 낮은 것은 역시 김훈·박래부의 「文學紀行」(한국일보사), 김용성의 「한국현대문학사탐방」(현암사), 황원갑의 「歷史人物紀行」(한국일보사) 등 시인·작가나 명작의 고향, 혹은 역사인물의 현장을 탐방하고 씌어진 책들.

국토순례를 통해 민중사의 실체를 확인하는 박태순의 「國土와 民衆」(한길사), 점차 망실돼가는 전통민요와 그에 얽힌 사람살이의 모습을 담은 신경림의 「민요기행」(한길사)은 가장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기행문의 모범을 보이는 책들로 평가되면서 각각 초판 출간 6년째와 4년째를 맞는 요즘도 꾸준히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영의 「예술의 城」(열화당), 김윤식의 「낮선 신을 찾아서」(일지사)와 「문학과 미술 사이」( ) 등은 해외예술의 현장기행적 성격을 공통분모로 갖는다. 10여년전에 출간돼 이제는 절판상태에 있긴 하지만, 최정호의 「藝」(세계의 무대」(지식산업사)도 깔끔한 편집과 저자 특유의 공연예술 심미안으로 오래 기억되는 이 방면의 '명저'로 꼽히고 있다.

특이하게는 세계각지의 박물관과 대학만을 집중적으로 기행한 내용을 담은 김수경의 「세계박물관산책」(문학정신사), 한국의 고적을 찾은 고은의 「절을 찾아서」(책세상), 전국각처에 산재한 누각과 정자의 역사적 유래와 오늘의 모습을 담은 장덕순 등의 「樓亭을 찾아서」(집문당)가 최근 한두해 사이에 잇따라 출간돼 이채롭다.

반면, 테마에세이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앞의 「프랑스문학산책」처럼, 연구나 창작



일관된 주제나 특정 소재를 중점적으로 다룬 테마에세이집이 최근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서적의 수필 코너.

생활에 관련된 낙수나 여적을 한데 모은 책들. 멀리는 이기백의 「讀史隨錄」(탐구당)이 역사연구의 낙수들을 알뜰히 주워모아 그럴듯한 '벼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까이 한마당의 '한마당산문선', 문학과지성사의 '오늘의 시론집', 한길사의 '한길산문정신', 조선일보사의 '오늘의 논평집' 등의 시리즈가 다 창작과 연구활동의 여적을 한데 담아 각각의 '작은 호수'들을 이루고 있다. 이승훈의 「너라는 신비」, 정현중의 「생명의 황홀」 등이 나온 「세계사에 세이」가 가장 최근의 것으로서, 이들은 대개 본격적인 논문집으로 뭉기에는 다소 무게가 덜한, 그러나 '잠 못 이루는 밤'적 특징을 갖는다.

한국·한국인론과 관련된 테마에세이집들은 독자들의 호응에 관한 한 가장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한 사례의 성급한 보편화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어령과 이규태의 저작들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밖에 윤태림의 「韓國人」(현암사), 신일철의 「韓國을 생각한다」(탐구당), 최하림의 「한국인의 멋」(지식산업사), 이홍우의 「한국 연륜」(대완도서), 전완길의 「지혜로운 한국 여성」(오늘), 그리고 김용운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한길사) 등이 나와 있다.

한국적인 것과 관련해서, 최승범의 「風味散策」(하나)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한 수상한 한데 모은 점이 이채롭다. 일찌기 홍승면의 「百味百想」(주우)이 한 정점을 보인 이 '음식에세이'는 홍성유(「맛과 멋을 찾아서」)를 거쳐, 앞의 「풍미산책」과 함께 최근엔 현직 의사인 신태범의 「먹는 재미 사는 재미」(서당)의 출간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六百年」(김영상, 한국일보),

「서울史話」(박경룡, 정음문화사) 등 考現學的 향토사 에세이를 비롯해서, 「山 좋아 산을 타니」(이승녕, 박영사), 「山을 생각한다」(이병주, 서당) 등 일련의 산악에세이들도 눈에 띈다. 또, 동서고금의 역사 및 예술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정신분석을 시도한 김석대의 「사람은 사람이다」(집현전)가 출간돼 이부영·이시영 등의 「의학에세이」의 뒤를 잇고 있고, '법률 에세이'로는 안경환의 「법은 사랑처럼」(대학출판사) 등이 나와 있다. 보다 대중적인 것으로는 이병주의 「에로스文化史」(원음사), 이철호의 「에로티시즘의 문화」(선비) 등 性을 테마로 한 에세이집들이 눈길을 끈다.

### 독서수준의 격상 이끄는 징검다리

그러나, 위의 테마에세이집들은 '홍수'로까지 표현되는 수필집의 전체 출판량에 견줄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책이 묶여져나오는 형식에서도 대개는 이미 다른 매체에 발표됐던 글들을 사후에 재편집함으로써 테마의 선명성이나 결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심지어는 그 소재주의적 경박성을 비난받을 소지도 있다.

다만, 이같은 테마에세이들의 잇단 출간이 이른바 '시인이 쓴 팔리는 수필'류의 폐해를 중화시키고, 장르분화에 따른 테마의 변별성이 수필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리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의가 평가될 만하다. 테마에세이는 일반수필의 독자들을 보다 진전된 수준의 책읽기로 이끄는 징검다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 테마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에세이 특유의 문학적 향기간의 행복한 만남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 강철주 기자